

2023년도 문화재위원회

제5차 중능문화재분과 소위원회

회의자료

- ▣ 회의일시 : 2023. 9. 26. (화요일), 10:30 ~
- ▣ 장 소 : 창덕궁 낙선재 및 회의실



# 목 차

## 【심의사항】

- 1 창덕궁 낙선재 K-헤리티지 작품 전시를 위한 장소 사용

## 【검토사항】

## 【보고사항】

## 1. 창덕궁 낙선재 “K-헤리티지 작품 전시” 장소 사용

### 가. 제안사항

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와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협업 프로그램 “K-헤리티지 아트展(가칭)”을 위하여 보물로 지정된 낙선재를 전시 장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. 이와 관련 장소사용 건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- 민관협업을 통한 국가유산 및 한국 전통 예술 콘텐츠의 전략적 홍보와 문화유산 가치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
- 「궁능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관련 안전부의 기준」 제2조 제2항 제1호 (국보 및 보물인 전각 내부에서의 장소사용)
- (‘23.09.19.) 제9차 궁능문화재분과 위원회 회의 결과(조건부 가결)
  -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것

### 다. 주요내용

(1) 신 청 인: 창덕궁관리소, (주)말리카, (주)세이버스코리아

※ 문화재청(문화유산협력팀) 지정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

- (주)말리카: 전통공예품 제조 및 교육, 공공미술, 인테리어 소품개발 일대(2018년 지정)
- (주)세이버스코리아: 문화재 브랜드 제품 제조 및 다양한 친환경 제품 판매(2022년 지정)

(2) 대상문화재명: 창덕궁

- 소 재 지: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99

(3) 신청내용

- 위치: 창덕궁 내 낙선재(보물 2012.3.2. 지정) \*내부에 전시물 설치
- 사업내용
  - 기간: 2023. 10.19.(목)~10.22(일) 10시~17시
  - 부제: 잇는 즐거움, 낙樂선線(가칭)
  - 내용: 국가무형문화재, 시·도문화재, 명인, 현대 작가의 전통에 기반한

공예 작품을 근현대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문화유산 낙선재에 담아내는  
콜라보 전시

※ 출품작(약 22명 작가, 26점)

- 무형문화재 작품: 국가무형문화재 김삼식 한지장, 선자장 김동식, 소반장 김춘식 등
- 문화유산모티브 현대작품: 현대작가 정진화 목가구, 신원동 향아리 궁중채화 등

- 관람: 창덕궁 관람객(전시관람료 무료)
- 설치장비: 전시대(3종 23개) 및 조명(4종 64개) ※ 구조물 변경 및 고정 없음
- 운영인원(22명): 기획연출 6명, 시설·인력운영 7명, 진행 6명, 안전 3명(순찰인원 별도)

장소	일정	운영내용
가정당	10. 19.(목), 10:00~11:30	오프닝 리셉션
낙선재	10. 19.(목) ~ 10. 22.(일)	국가무형문화재·지방문화재·현대작가 명인 등의 전시

※ 반입 및 설치: 2023. 10. 18.(수) / 철수 및 정리: 2023. 10. 23.(월)

#### (4) 신청인 의견

- 가장 최근까지도 실제 생활하였던 낙선재는 조선시대부터 근현대를 이어주는 공간으로 궁궐내 단청이 없는 소박한 건물이지만 다양한 창호와 담장 문양 등으로 단아한 품격을 느낄 수 있는 장소임
- 전통공예 무형유산 역시 옛것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와 미래에까지 어어지는 노력을 무형문화유산 보유자와 전통에 기반한 현대 작가들이 계속해오고 있음
- 낙선재의 독특한 공간 성격에 어울리는 전통과 현대 작품 전시를 통해 미래를 잇는 즐거움(樂線)을 관람객과 함께하는 효과가 기대됨

## 라. 참고사항

### (1) 검토의견(창덕궁관리소)

- 낙선재의 방과 마루 공간을 활용하여 관람객이 내부에 입장하지 않고 밖에서 들여다보는 전시 구성과 작품 전시를 위한 구조물 설치가 없기 때문에 문화재 훼손이 거의 없다고 판단됨
- 문화유산의 과거 공간에 현존하는 전통공예 작품을 담아내는 이음의 전시로 문화유산의 가치에 가치를 더하는 시너지 효과, 관람객이 자연스럽게 전통 문화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
- 전시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(2023.9.22.) 결과를 반영하여 전시주체의 명확성, 관람객과의 친화적인 전시, 전시 공간 활용 방안 등을 상세히 보완하였음